

2 0 2 1

[위피백과] 심 프_ver.

수 국 월 장

수능 국어의 일취월장

W e P i

들어가는 말

0. 자료의 특징

제 자료는 선지에 대한 자세하고 논리적인 풀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는 배경지식 따위의 것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비문학, 문학 모두 제시된 '텍스트'를 올바르게 읽고 거기에서 근거를 찾아 '객관적으로' 풀이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선지들은

지문을 올바르게 읽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거를 수 있습니다.

수능은 우리의 '독서 능력'을 평가합니다.

제가 비문학에서 지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후술하겠습니다.

"문학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푸냐?"

잘 풀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우리 생각에 관심이 없습니다.

문학을 주체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싶다면 국어를 전공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응시인원이 4~50만여 명입니다. 수십 만의 학생은 제각기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5가지의 선지로 구분하나요?

못하죠. 수십 만의 생각을 어떻게 고작 5개로 나누나요?

결국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텍스트에서 근거를 찾고,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은 선지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선지의 해석이 '그럴 듯하냐', '그럴 듯한 헛소리냐', '대놓고 헛소리냐'를 판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수십 만의 학생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1. 독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비문학'의 정식 명칭은 '독서'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치면서 읽나요?

혹은 어떤 논리적 수식을 적어가면서 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생각하죠.

바로 '필자의 의도'입니다.

글쓴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생각합니다.

수능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는 '독서'이어야 하고, 우리는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지문의 주제(화제)를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 놓어야 해요.

쏟아지는 정보량, 비어있는 연결고리, 불친절한 서술 등 수험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장치 속에서도

'독서'라는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정보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싶은 개념도 모두 화제를 말하기 위해서 제시됩니다.

이 기본 틀을 잡고 시험을 위한 방법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독서'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비교지점, 예시, 재진술, 예외에 주목합니다.

물론, 화제는 당연히 주목하구요.

자세한 것은 지문 해설을 읽으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 자료의 사용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비문학(독서) : 비문학의 경우 하나의 화제를 잡는 방법 + 화제를 중심으로 한 지문의 유기성

문학 :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풀이

이 부분에 주목해서 제 자료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 사관학교 [16~20]

선물 거래는 경기 상황의 변화에 의해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과 그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A]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이 주변 여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데서 오는 위험에 대비해 3개월후 수확하는 배추를 채소 중개상에게 1포기당 8백 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계약을 선물 계약, 8백 원을 선물 가격이라고 한다.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은 선물 계약을 맺음으로써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채소 중개상은 왜 이와 같은 계약을 한 것일까? 만약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상으로 크게 뛰어들면 그는 이 계약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추를 경작한 농민과는 달리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농민이 우려하는 위험을 대신 떠맡는 데 동의한 것이다.

선물 거래의 대상에는 농산물이나 광물 외에 주식, 채권, 금리, 외환 등도 있다. 이 중 거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방식이 좀 더 복잡한 외환 즉, 통화 선물 거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의 가격, 즉 달러 환율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수출입 기업의 경우 뜻하지 않은 손실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달러 선물 시장에서 약정된 가격에 달러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해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해 식품을 만드는 A 사는 7월 25일에 20만 달러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후인 9월 25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7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US\$이고 9월에 거래되는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05원/US\$이다. A 사는 2개월 후에 달러 환율이 올라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해 선물 거래소에서 9월물 선물 20만 달러어치를 사기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9월 25일이 되자 A 사가 우려한 대로 원/달러 환율은 1,350원/US\$,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55원/US\$으로 올랐다. A 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당장 미국의 밀가루 제조 회사에 지급해야 할 20만 달러를 준비하는 데 2개월 전에 비해 1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달러당 1,305원에 사서 1,355원에 팔수 있으므로 선물 거래를 통해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어 현물 거래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외환 거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 산출	손익
현물	-50원(1,300원-1,350원) × 20만 달러	-1,000만 원
선물	50원(1,355원-1,305원) × 20만 달러	1,000만 원

<표> A 사의 외환 거래로 인한 손익

반대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 기업의 경우 받은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이므로, 특정한 시점에 달러 선물을 팔기로 계약하여 선물의 가격 변동을 이용함으로써 손실에 대비하게 된다.

① 선물이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약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한 시점에 사거나 파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있는데 이를 ㉠ 옵션(option)이라고 한다. 계

약을 통해 옵션을 산 사람은 약정한 시점, 즉 만기일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포기하면 옵션 계약을 할 때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의 손실은 발생한다. 만기일에 약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콜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상승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콜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풋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하락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풋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선물이나 옵션은 상품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손실을 줄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거나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내에서 손실 그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
- ② 선물 거래로 인한 부작용
- ③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 ④ 선물 거래와 시중 금리의 상관관계
- ⑤ 선물 거래에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 [A]의 거래 방식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정된 소득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군.
- ②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동인 것이군.
- ③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전가하는 것이군.
- ④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에 손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군.
- ⑤ 소득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거래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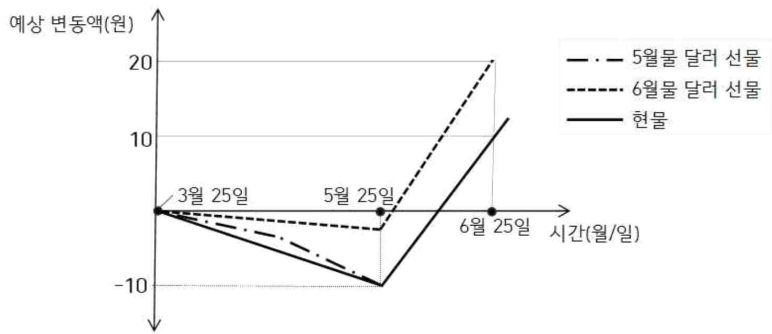
3.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가격 변동의 폭에 따라 손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 ② ㉡은 ㉠과 달리 약정한 상품에 대한 매매의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③ ㉡은 ㉠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④ ㉠, ㉡은 모두 계약 시점과 약정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⑤ ㉠, ㉡은 모두 위험 요소로 인한 시장 내의 경제적 손실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4. <보기>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회의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황 보고자 : 우리 회사는 오늘 3월 25일에 미국 회사에 LCD 패널 1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2개월 후인 5월 25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금융 대응팀에서 여러 경제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3월 25일부터의 환율 및 달러 선물 가격의 변동을 아래와 같이 예측했습니다. 3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50 원/US\$이고, 5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260 원/US\$입니다.



김 대리 : 달러 현물 가격의 추이로 볼 때 5월 25일에 현물로 대금을 받는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 하네요.

최 과장 : 5월 25일에 거래되는 5월물 달러 선물 100만 달러어치를 팔기로 계약한다면 현물로 받은 대금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장 : 전례가 있으니 미국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금을 받는 날짜를 1개월 더 늦춰 6월 25일로 연기 한다면 굳이 5월물 달러 선물을 계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 대리 : 말씀하신 대로 대금을 받는 날짜를 6월 25일로 1개월 더 연기할 수 있다면 현물 거래로도 우리 회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 대리 : 현재 6월물 달러 선물 가격은 1,280원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는 날짜를 1개월 더 연기하고, 6월 25일에 거래되는 6월물 달러 선물 100만 달러어치를 팔기로 계약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해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① 김 대리 ② 최 과장 ③ 이 차장
- ④ 고 대리 ⑤ 박 대리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옵션 거래의 대상인 상품 ①, ②가 계약일에 약정한 가격 대비 만기일의 가격이 ①은 상승하였고, ②는 하락하였다. 이에 ①, ②에 대한 옵션을 거래한 사람들은 손익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

- ① ①에 대한 콜옵션을 판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 ② ①에 대한 풋옵션을 산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 ③ ②에 대한 콜옵션을 산 사람은 만기일에 손실을 보았겠군.
- ④ ②에 대한 풋옵션을 포기한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 ⑤ ②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한 사람은 만기일에 손실을 보지 않았겠군.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 사관학교 [5~8]

〔**앞부분의 줄거리**〕 김진희와 이혈룡은 출세하면 서로 돕기로 맹세한다. 양가 아버지가 모두 죽은 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되나, 이혈룡은 매우 궁핍한 처지가 된다.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김진희는 이혈룡을 죽이려고 한다. 이혈룡은 기생 옥단춘에 의해 구출되고, 두 사람은 가연을 맺는다. 이후 과거에 급제한 이혈룡은 암행어사가 되나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간다. 하지만 옥단춘은 이혈룡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김진희가 연광정에서 벌인 잔치에 옥단춘이 불려나간다.

역졸들과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자 이혈룡은 그 남루한 행색으로 성큼성큼 연광정 대상(臺上)으로 올라가니,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혈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꿰려 놓으니, 김 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건디어 보라!”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희야, 들어보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 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근근이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내가 놓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의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 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 물귀신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내가 연광정에서 호유(豪遊)*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중략)

김 감사가 사공들에게 호령하여,
“이혈룡과 옥단춘이 두 연놈을 한 배에 싣고 나 보는 앞에서 대동강 깊은 물에서 던져 보리라!”

사공들이 저희들 목숨 산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물러나자, 김 감사는 또 영을 내려서 북소리를 세 번 덩덩덩 울리니,
“그 연놈을 빨리 함께 죽여라!”

하니, 이때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암행어사 이혈룡이 사공들에게 묶여서 배에 실려 오를 적에 탄식하고 하는 말이,
“봉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구나. 전에는 ㉠ 너와 내가 생사를 같이 하자고 태산처럼 맺었더니, 살리기는 고사하고 죄 없이 죽이기를 일삼으니 그럴 법이 어디 있나. 오륜(五倫)을 박대하면 양화(殃禍)가 자손에까지 미치리라.” 하고, ㉡ 대동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한탄을 계속하니라.
“대동강 맑은 물아, 내가 너와 무슨 원수로, 한 번 죽기도 억울한데, 두 번이나 죽이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정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이때 옥단춘이 이혈룡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과 바라보며 기절할 듯이,

“원통하고 가련하다. 무죄한 우리 목숨 천명을 못 다 살고 어복중(魚腹中)의 원혼 되니, 청천은 감동하사 무죄한 이 인생을 제발 살려 주소서.”

하고 하늘에 호소할 때, 물에 던지기를 재촉하는 북소리가 한 번 울리니, 옥단춘은 더욱 기가 막히더라.

[A] “애고 애고 이일을 어찌할까? 임아 임아 낭군님아, 어찌 하면 산단 말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정신차려라.”

이때 북소리가 두 번 울리매, 춘이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임아 임아 서방님아, 이제는 꼭 죽었지 못살겠소. 살려주소. 살려주소. 무죄한 이 소첩을 제발 살려주소. 신명께 맹세하여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때 세 번째 북소리가 들렸으니, 사공들은 당황히 재촉하니라.
“어서 물에 들어가소. 일시라도 지체하면 우리 목숨 죽을 테니 어서 물로 들어가소.”

하고 성화같이 재촉하니 옥단춘이 닢을 잃고,

〔 “여보 사공님들 들어보소. 당신들도 사람이면 무죄한 이 [B] 인생을 왜 그리 죽이려 하오? 나만은 자결할 테니, 우리 낭군 살려주소.”

“아무리 야속해도 감사님 명령이 엄격하니, 살릴 묘책 없소이다. 어서 바빠 조처하소.”

옥단춘은 단념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머리에 쓰고 이를 갈면서 벌벌 떨고,

“에구머니 나 죽는다!”

㉢ 한 마디 지르고 풍덩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이혈룡이 깜짝 놀라서 옥단춘의 손을 부여잡고 가로되,

“춘아 춘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잡아서 옆에 앉히고, 저쪽 연광정을 훑어보면서,

“애들, 서리 역졸들아!”

하고, 부르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니,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우레 같은 고탈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도하옵시오!”

하는 ㉣ 소리가 연광정과 대동강을 뒤엎을 듯 하니라.

(중략)

어사또의 호령이 내리자, 좌우의 나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번개같이 곤장 태장으로 두들겨 대며 가로되,

“애고애고, 어사또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제가 죽을죄를 진 것은 저도 모를 귀신이 시켜서 그랬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어사또 처분이오니, 죽을죄 지은 놈이 무슨 말씀하오리까. 처분만 바라오며 잔명을 비읍니다.”

“네 이놈, 나뿐 아니라 죄 없는 옥단춘까지 나와 함께 죽이려 한 것은 무슨 까닭이나? 네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어사또는 전에 자기를 배에 싣고 물에 넣으러 가던 사공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 이 놈을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 버려라.”

사공들이 어사또의 영을 듣고 김진희를 끌어다 배에 싣고 만경창과 물위로 떠나기 시작하니라. 이때 어사또가 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 놈의 죄는 만 번 죽여도 부족하지만, 나로서 옛정을 생각하니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나졸을 불러서 분부하니라.

“너희들 급히 배에 가서 그 양반을 물 속에 한참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도루 건져서 배에 싣고 오너라.”

“네잇”

하고, 나졸들이 강을 향하여 달려갈 적에, ㉤ 별안간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일어나더니 김진희를 벼락쳐서 시체도 없이 분쇄해 버린지라. 나졸들과 사공들이 돌아와서 김진희가 천벌의 벼락을 맞고 머리털 하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연유를 아뢰니, 이혈룡 어사또는 그래도 살려 주려 하였던 김진희가 천벌로 참혹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옛정을 생각하고 슬퍼하더라.

- 작자 미상, 「옥단춘전」 -

* 호유(豪遊) : 호화롭게 놀.

6.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서리 역졸들이 외치는 '암행어사 출도'는 김진회를 몰락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② 이혈룡과 옥단춘을 죽일 것을 재촉하는 '복소리'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이혈룡이 죽었다가 되살아났던 '대동강'은 재생의 공간으로서 작품의 전기적 성격을 강화하는군.
- ④ 김진회를 내려친 '벼락'은 친구 사이의 신의가 중요하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군.
- ⑤ 자신을 죽이려 한 김진회의 죄를 다스리는 '연광정'은 이혈룡의 명예 회복의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7. [A]의 상황에서 '옥단춘'이 <보기>와 같이 노래했을 때, 표현의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남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불탄다
 저 산의 저 불은 끝 물이나 있지만은
 이 몸에는 연기 없는 불이 나니 끝 물 없어 하노라.

- ① 삶에 대한 애착을 '남산에 불이 나니'로 표현하였군.
- ② 목숨을 잃게 된 처지의 자신을 '못다 핀 꽃'으로 표현하였군.
- ③ 급박한 상황 속의 안타까움을 '저 불은 끝 물이나 있지만은'으로 표현하였군.
- ④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연기 없는 불'로 표현하였군.
- ⑤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좌절감을 '끝 물 없어 하노라'로 표현하였군.

8. [B]에 드러난 '옥단춘'의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모험이다.
- ② 사랑은 자기희생의 다른 이름이다.
- ③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 ④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 ⑤ 사랑할 만한 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한다.

9. ㉠~㉣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금석맹약(金石盟約)
- ② ㉡: 망양지탄(亡羊之歎)
- ③ ㉢: 명재경각(命在頃刻)
- ④ ㉣: 경천동지(驚天動地)
- ⑤ ㉤: 인과응보(因果應報)

[1~5]

선물 거래는 경기 상황의 변화에 의해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과 그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이 주변 여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데서 오는 위험에 대비해 3개월 후 수확하는 배추를 채소 중개상에게 1포기당 8백 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계약을 선물 계약, 8백 원을 선물 가격이라고 한다.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은 선물 계약을 맺음으로써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채소 중개상은 왜 이와 같은 계약을 한 것일까? 만약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상으로 크게 뛰어오르면 그는 이 계약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추를 경작한 농민과는 달리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뛰어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농민이 우려하는 위험을 대신 떠맡는 데 동의한 것이다.

선물 거래(계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시로 풀어 써주세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선물 거래는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과 그 위험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배추를 사고 파는 예시로 풀어 써줍니다. 그럼 당연히 선물 거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농민과 채소 중개상이 3개월 후에 배추 한 포기 당 800원에 사고 팔기로 하는데 이게 선물 계약이라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 계약에서 결정되는 배추 값이 선물 가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 계약에서 선물을 거래하기로 결정하는 가격(800원)이 선물 가격입니다. 어휘에서부터 감을 잡기 쉬웠을 테지만 한 번 짚어줬어요.

그리고 이때 농민은 배추값이 800원 아래로 떨어져도 그 값에 팔 수 있으니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즉, 배추값이 떨어진다는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람이네요. 반면 채소 중개상은 3개월 뒤에 배추값이 800원보다 비싸져서 그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배추값이 800원 떨어졌을 때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선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 - 위험 감수, 이익 기대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예시에서는 '배추값이 떨어져서 보는 손해를 피하려는 농민'과 '배추값이 올랐을 때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배추값이 떨어졌을 때 받는 손해를 감수하는 채소 중개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 선물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줬습니다. 예시로 풀어서까지 설명해줄 정도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정리한 후에 넘어갑시다.

그런데 정작 선물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국어를 이미 월등하게 잘하시는 분이려면 느낌 상 이해하셨겠지만 뒤에서 이를 이해할만한 장치가 등장하니 그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읽어보니까 계속 선물 계약, 선물 거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지문의 주된 내용(화제)를 이룰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의 대상에는 농산물이나 광물 외에 주식, 채권, 금리, 외환 등도 있다. 이 중 거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방식이 좀 더 복잡한 외환 즉, 통화 선물 거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의 가격, 즉 달러 환율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수출입 기업의 경우 뜻하지 않은 손실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달러 선물 시장에서 약정된 가격에 달러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해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앞에서 선물 거래, 선물 계약에 대해서 배추의 예시를 통해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그 논의 범위를 통화 선물 거래로 한정하네요. 그리고 통화 선물 거래는 달러로 대금을 주고받는 것에서 손실 위험이 있는데, 역시나 이때도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2문단 전체가 화제의 구체화를 알려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생각해볼 만한 것은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선물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위험을 회피하여 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거래 대금을 달러로 주고받는 수출입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했으니, 반대로 이 수출입 기업과 계약하는 상대방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기대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문단의 내용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해 식품을 만드는 ① A 사는 7월 25일에 20만 달러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인 9월 25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7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US\$이고 9월에 거래되는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05원/US\$이다. ③ A 사는 2개월 후에 달러 환율이 올라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해 선물 거래소에서 9월물 선물 20만 달러어치를 사기로 계약하였다. ④ 그리고 9월 25일이 되자 A 사가 우려한 대로 원/달러 환율은 1,350원/US\$,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55원/US\$으로 올랐다. ⑤ A 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당장 미국의 밀가루 제조 회사에 지급해야 할 20만 달러를 준비하는 데 2개월 전에 비해 1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손실을 보았다. ⑥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달러당 1,305원에 사서 1,355원에 팔 수 있으므로 선물 거래를 통해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어 선물 거래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어렵습니다. 생각 없이 읽으면 정말 이게 무슨 소린지 도통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선물 거래, 그리고 선물 계약에 대한 내용일 거야'

'앞에서 수출입 기업은 선물 거래에서 위험에 대비하려는 입장 이야'

이것 두 개만 딱 잡고 읽어봅시다.

A 사는 7월 25일에 20만 달러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2 개월 후인 9월 25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A사는 7월에 20만 달러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통화 선물 거래, 달러 거래의 예시가 나오네요. 앞에서 나온 내용과 무조건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읽으셔야 합니다. 결국 이 A사의 달러 거래 이야기도 위험을 대비하는 선물 거래, 선물 계약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계속 읽어봅시다.

7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US\$이고 9월에 거래되는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05원/US\$이다.

7월의 환율과 9월의 달러 선물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이 7월에는 1300원, 9월에는 1305원입니다. 그렇다면 뒤에는 당연히, 달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네요. 이건 왜 그런지 다 파악하셨죠? A사는 위험에 대해 대비하려는 수출입 기업이고 달러라는 통화 선물을 거래하는 중이니까요!

일단 선물 가격은 당연히 체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환율과 달러 선물 가격이 따로 제시되네요.

헛갈리나요?

다시, 지금 이 문단은 '달러 선물'이라는 통화 선물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7월 25일 현재의 달러 환율은 지금 달러 가격, 9월물 선물 달러는 9월에 달러를 사고 팔 때의 가격 정도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달러 선물이니까요! (선물 가격 기억나시죠?)

왜? 선물 거래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달러입니다. 즉 선물 거래는 달러 선물 거래일 것이니까요.

우선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 봅시다.

A 사는 2개월 후에 달러 환율이 올라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해 선물 거래소에서 9월물 선물 20만 달러어치를 사기로 계약하였다.

A 사는 '달러 환율이 올라서(변동해서)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소에서' 9월물 '선물 달러'를 20만 달러어치를 샀다고 합니다.

나왔네요. 나왔어요. 달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일어날 위험에 대비해서 '선물 거래소'에서 '선물 달러'를 거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선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선물 달러입니다. 즉, (미래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하는 선물 거래를 하는 대상인 것이네요. 앞에서 나온 배추(값)에 해당하는 예시인 겁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그냥 그 시점에서 보는 미국 달러의 가격입니다. 앞에서 정의해 준 대로네요.

다시 볼게요.

일단 선물 거래의 대상이 되는 달러 선물에 대해서만이라도 명확하게 잡아봅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미래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A사가 9월물 달러 선물을 구매했으니까, 이 녀석은 선물 거래의 대상이고 달러의 가격 변동에 대해 대비하려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선물 달러를 거래하는 것이었군요.

사실 국어에 대한 감이 있으신 분이시면 배추값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배추값도 보면 결국 '3개월 후에 수확하는' 선물 거래에 대한 내용이었죠. 조금 더 가보자면 선물 거래 자체가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현재에 거래하는 물건은 자산 가격이 변동할 위험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시점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게 선물 거래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문단에서도 역시나 '예시'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지만요.

그럼 7월 25일의 달러 환율이 1300원이라는 것과 9월에 거래되는 9월물 선물 달러의 가격이 1305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

'달러 가격이 변동할 위험이 있으니까 선물 거래를 하는데 그때 선물 거래되는 달러가 달러 선물인 것'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선물 가격으로, 7월 시점에서 9월달에 있을 달러 가격 변동(환율 변동_상승)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9월의 달러를 1305원에 사두겠다는 선물 거래를 할 때 정해지는 달러의 가격(=선물 가격)'

정도입니다.

그럼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1305원)은 9월에 환율이 상승해서 오는 손실을 대비해서 구매하는 가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 가격인 1300원에서 환율이 상승하여 1305원보다 높아지면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한 것이고,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것이네요. 배추값의 예시랑 똑같습니다. 동시에 선물 거래의 예시가 맞네요.

선물 거래를 머릿속에 제대로 박아뒀어야 했어요

그리고 9월 25일이 되자 A 사가 우려한 대로 원/달러 환율은 1,350원/US\$,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55원/US\$으로 올랐다.

9월 25일이 되었을 때, 달러 환율과 9월물 선물 가격이 모두 50원씩 올랐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달러 가격이 올랐네요. 달러 상승은 손실을 가져오는데 앞에서 9월물 달러 선물을 선물 거래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계약에서 책정한 선물 가격인 1305원보다 가격이 50원이나 올랐으니 그 손실을 대비했겠네요. 여기까진 괜찮죠? 손실을 대비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선물 거래! 모르겠다면 천천히,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A 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당장** 미국의 밀가루 제조 회사에 지급해야 할 20만 달러를 준비하는 데 2개월 전에 비해 1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손실을 보았다.

‘당장’ 지급해야하는 20만 달러를 준비하는 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7월에 비해 환율이 50원이나 뛰었었으니까요! 그리고 환율이 오른 시점(당장)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니까 손해인 겁니다. 지문에서도 환율이 오르면 손해라고 대놓고 이야기 해주었구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달러당 1,305원에 사서 1,355원에 팔 수 있으므로 선물 거래를 통해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어 선물 거래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아까 9월물 달러 선물을 1305원(선물 가격)에 사는 선물 계약을 맺었죠? 선물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9월물 선물 달러 가격이 50원 올랐는데 그걸 오르기 전에 50원 싸게 구매했어요. 즉 선물 거래를 통해, 환율 상승으로 인한(경기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했네요. 여기서 남긴 이윤으로 ⑤에서 일어난 손해를 뺄 수 있네요.

반대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 기업의 경우 받은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이므로, 특정한 시점에 **달러 선물을 팔기로 계약**하여 선물의 가격 변동을 이 용함으로써 손실에 대비하게 된다.

아까 예시로 등장한 A사는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 손해였는데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로 대금을 받는 회사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달러 선물을 ‘사는’ 선물 계약을 통해 손실을 대비하던 A사와는 반대로 달러 선물을 ‘파는’ 계약을 통해 손실을 대비하네요. 사고 판다는 개념에 대해서 비교지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넘어갈게요.

선물이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약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한 시점에 사거나 파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있는데 이를 옵션(option)이라고 한다. 계약을 통해 **옵션을 산 사람은 약정한 시점, 즉 만기일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포기하면 옵션 계약을 할 때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의 손실은 발생한다.** 만기일에 **약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콜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상승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콜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풋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하락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풋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앞에서 선물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옵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에 대해 이익과 손해를 설명하네요. 헛갈리고 복잡해요. 천천히 한 문장씩 뜯어봅시다.

선물이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약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한 시점에 사거나 파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있는데 이를 옵션(option)이라고 한다.

앞 문단이 문단 간 연결고리로 작용하네요. 그리고 지문의 핵심 키워드에 관한 개념인 선물을 여기서 정의해줍니다. 그런데 결국 선물 거래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어요. 지문의 흐름대로, 앞에서 이해한 대로 화제가 되는 선물 거래와 관련지어서 선물의 의미를 파악하면 충분했습니다. 그건 앞에서 해설하면서 질리도록 봤죠?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옵션에 대해서 소개하네요. 앞 문단에서 사고 파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선물 거래로 손실을 대비하는 부분이 달랐죠? 이때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옵션이라고 합니다.

‘사고 판다’라는 내용이자 비교지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캐치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선물과 옵션의 비교지점도 잡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약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건 같은데, 옵션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네요. 선물 계약에서는 가격 변동으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를 해야 됐는데, 여기는 사거나 파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 봐서 꼬우면 안사도 된다는 겁니다. 좋네요.

계약을 통해 **옵션을 산 사람은 약정한 시점, 즉 만기일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옵션의 기능을 설명해줍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을 재진술 해주네요. 잘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옵션 계약을 할 때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의 손실은 발생한다.**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하네요. 옵션 구매 계약에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계약금이 있었는데 이 옵션 행사를 포기하게 되면 옵션 프리미엄 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장 그대로이네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 문장과 이어서 생각해봅시다. 약정한 시점(미래)에 옵션 행사가 불리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계약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네요.

아까 선물(계약)과는 달리 옵션은 살지 말지 그걸 고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옵션은 손실을 안 볼 줄 알았는데 그 권리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녀석이 있네요. 약정한 시점에 그 권리를 행사하기를 포기하면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선물과의 비교지점이네요.

비교지점 정리할게요. 선물은 약정한 시점이 되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옵션은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손실을 보기는 봅니다. 선물은 앞에서 실컷 얘기했으니 왜 그런지 아시리라 믿고, 옵션은 행사를 포기했을 때 옵션 계약에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계약금이 손실로 다가오네요.

만기일에 약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옵션의 정의가 뭐였죠? '사거나 파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 종류를 나눠주네요. 살 권리 = 콜옵션 / 팔 권리 = 풋옵션입니다.

콜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상승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콜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슬슬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실전에서는 그냥

콜옵션 산 사람 : 가격 ↑ - 이익

콜옵션 판 사람 : 가격 ↑ - 손실

이렇게 체크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하니까 조금 더 뜯어봅시다.

콜옵션을 산 사람은 정확히 뭘 얻나요?

약정 시점 이전에, 결정한 금액에 상품을 사는 '권리'를 얻는 거죠?

여기까지는 선물과의 비교지점(공통점)이니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약정 금액보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그 차이만큼 이익이 될 것이고 반대로 판 사람은 약정 금액,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상승한 가격대로 사야하니 손해네요. 이해해 볼 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풋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하락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풋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비례/증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풋옵션 산 사람 : 가격 ↓ - 이익

풋옵션 판 사람 : 가격 ↓ - 손실

콜옵션을 이해한 논리와 똑같습니다. 약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이죠. 그럼 풋옵션을 산 사람은 약정한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더 비싼 약정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 이익인 것이고, 풋옵션을 판 사람은 더 비싼 약정 가격에 못 팔아먹고 싼 가격에 팔아야하니 손해를 보겠네요.

그런데, 앞 문장과 합쳐서 하나 기억하고 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비례/증감을 뒤집어서 콜옵션을 산 사람의 경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가격 변동 폭만큼의 손해를, 풋옵션을 산 사람의 경우 가격이 증가했을 때는 가격 변동 폭만큼의 손해를 볼까요?

맞아요.

라고 생각했으면 큰일납니다.

옵션은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면 행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앞에서 이야기해준 옵션의 정의를 제대로 기억하고 읽지 않는다면 자칫 비례/증감을 거꾸로 대입시켜서 오독할 수 있습니다.

대신 판 사람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옵션을 팔았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선물이나 옵션은 상품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손실을 줄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내에서 손실 그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선물과 옵션의 비교지점을 한 줄로 때려줍니다. 미괄식의 끝판왕이네요... 오열... 그리고 뭐 뒤에는 그냥 선물과 옵션의 취지, 그리고 부작용이 제시됩니다.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1. ④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뭐 선물 거래 빈도가 늘어나고 이런 상관관계는 없었죠? 간단합니다.

① 화..제...

②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었죠?

③ 2문단 화제의 구체화 단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선물 거래의 대상에는 농산물이나 광물 외에 주식, 채권, 금리, 외환 등도 있다.'

잘 드러나네요.

⑤ 선물 거래 중 외환, 그 중 통화 선물 거래(달러)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손익이 갈렸습니다.

2. ③

[A]의 거래 방식이 뭔지부터 생각합시다. 선물 거래네요. 선물 거래는 뭘 위한 것이었죠? 경기 변동, [A]에서는 배추값 변동이겠네요. 아무튼 그런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죠! 반대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A]에서 전자는 농민, 후자는 채소 중개상이었죠 이걸 기억하고 선지로 들어가봅시다.

선물 거래의 경우 한 쪽의 위험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추값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을 볼 농민의 위험이 채소 중개상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채소 중개상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추값이 인상되었을 때의 이득을 기대하는 것이구요. 정답은 3번이네요.

① 양쪽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안정된 소득은 농민만 보장받는 것이었죠? 채소 중개상은 배추값이 800원보다 낮아지면 손해입니다. 다만, 그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추값이 올랐을 때의 이득을 기대하는 것이죠. 즉, 채소 중개상은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② 수요 공급..?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넘기셔야해요.

④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손실을 나누어 갖는 것도 아닙니다. 배추값 예시를 통해 선물 거래가 뭔지 파악하셨다면 바로 지울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농민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배추값이 떨어져서 받는 손실 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까지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이익 극대화는 대놓고 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을 나누어 갖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선물 계약) 배추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채소 중개상에게 넘어갔습니다. 배추값이 선물 가격인 800원보다 떨어져도 농민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채소 중개상은 손해를 보죠. 실제 가격보다 비싼 800원에 사야 하니까요! 그래서 채소 중개상은 이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추값이 800원보다 비싸졌을 경우에 얻을 이득을 기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⑤ 소득을 균형 분배...? 거래 당사자 소득에 따라 선물 가격이 달라진다고...? 지웁시다...

3. ①

헛갈릴 수 있어요. 일단 ㉠, 선물은 가격 변동 폭에 따라서 손익이 달라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배추값 예시를 끌고 올게요. 800원이라는 배추값, 선물 가격보다 높으면 그만큼 채소 중개상은 이득입니다. 그리고 800원보다 떨어지면 농민도 선물 가격인 800원과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고, 채소 중개상은 그만큼 손실을 입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바뀌네요.

그런데 옵션은 조금 다릅니다. 손실을 보는 정도는 정해져있어요. 슬슬 감이 잡히시죠? 일단,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각각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그 옵션을 사고 판 사람이 그 가격 변동만큼의 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옵션 행사를 포기할 때 오는 손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옵션 행사를 초기하면 옵션 계약 때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 만큼 손해를 봅니다. 이때 옵션 프리미엄은 상품 가격의 변동과 관계 없이 고정적입니다. 옵션 계약할 때 지불했던 금액이니까요. 그러니까 옵션 행사를 포기할 때 오는 손실은 가격 변동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지 않네요,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혹은 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옵션을 사고 파는 경우만 따진다면 ㉡과 ㉢ 둘 다 가격 변동의 폭에 따라 손익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② 네. 지문 분석에서 비교지점 잡으면서도 이야기 했어요. 만약 이 선지가 왜 틀렸는지 정확히 모르셨다면 지문 해설을 다시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선물은 정해진 가격에 무조건 거래를 해야 합니다. 반면 옵션 행사를 포기하면 되네요. 이때 상품 가격이 약정 가격보다 높아져서 행사하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었고, 포기하면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었죠?.

③ 그럴 수 있겠네요. 선물 계약을 하면서 옵션도 같이 사면 가격 변동으로 인해 내가 손실을 볼 때 옵션 행사를 포기하면 옵션 프리미엄 만큼의 손실만 볼 거니까요. 그리고 가격 변동 상황에 따라 풋옵션이나 콜옵션이나 사거나 팔면 손실을 대비하고 때에 따라 이득을 챙길 수도 있겠네요. 맞는 말입니다.

④ 네 이걸 쉽네요. 둘 다 미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⑤ 선물은 한 쪽이 위험으로 위험이 전가되기도 하고 가격 변동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렸습니다. 옵션도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고정적 손실은 있어요. 그리고 옵션을 사고 팔 때도 콜옵션인지, 풋옵션인지, 상품 가격이 증가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따라서 손실을 보기도 했어요. '대비'를 위한 것이지 손실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4. ⑤
(인물은 선지 번호로 대체할게요)

<보기>부터 봅시다. 일단 이 회사는 A사와는 다르게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로 '받는'군요. 그럼 달러의 가격이 떨어질 때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데, 대금을 받기로 한 5월 25일 시점의 그래프를 보니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려고 달러 선물을 '파는' 선물 계약을 하겠네요. 한 번 봅시다.

6월 시점에서의 달러 현물 가격이 3월 시점의 달러 현물 가격보다 높습니다. 애네들은 환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선물 계약을 해야하는데 6월에 달러 현물 가격이 더 높다면 굳이 6월에 선물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선물 거래의 목적(손실 대비)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체크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① 5월 25일을 보니 달러 현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라고 했죠? 맞는 말입니다.

② 5월물 선물 달러는 가격이 하락하네요. 그럼 이 달러 선물을 비싸게 '팔면' 손실을 뺄 수 있을 겁니다.

③, ④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이기 때문에 선물 계약을 통해 이를 방지하는데 6월 25일을 보니 환율이 올랐네요. 그럼 대금을 달러가 오를 시점에서 받는다면 손해가 없으니 손실을 막기 위한 선물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네요.

5. ③
옵션 관련 비례/증감 관계부터 확인합시다.

콜옵션 산 사람 = 가격 ↑ - 이익
콜옵션 판 사람 = 가격 ↑ - 손실

풋옵션 산 사람 : 가격 ↓ - 이익
풋옵션 판 사람 : 가격 ↓ - 손실

<보기>를 보면 상품 ㉠의 가격은 상승, ㉡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천천히 나눠볼게요.

㉠ 가격 ↑
- 콜옵션 산 사람 : 이익
- 콜옵션 판 사람 : 손실
- 풋옵션 산 사람 : 손실(포기 시 옵션 프리미엄)
- 풋옵션 판 사람 : 이익

㉡ 가격 ↓
- 콜옵션 산 사람 : 손실(포기 시 옵션 프리미엄)
- 콜옵션 판 사람 : 이익
- 풋옵션 산 사람 : 이익
- 풋옵션 판 사람 : 손실

그럼 답은 3번이네요.

① ㉠ 상품에 대한 콜옵션을 판 사람은 손해입니다. 약정 가격보다 올랐으니 약정 가격에 비해 비싸게 사야하니까요!

② ㉠ 상품에 대한 풋옵션을 산 사람은 손해입니다. 약정 가격보다 상품의 가격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약정 가격으로 팔아야하니 그 권리를 행사해서 이득 볼 게 없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이때는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④ 일단 포기를 하면 무조건 옵션 프리미엄 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요. 그런데 ㉡에 대한 풋옵션을 사서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죠. 왜? 약정 가격보다 상품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걸 더 비싼 약정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포기하니... 옵션 프리미엄에 더해 받을 수 있을 이익까지 날아가네요. 흑우네요 흑우... 그리고 정말 말도 안되는 선지...

⑤ 권리를 포기하는 게 유리하더라도 포기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손실이 존재합니다!

[6~9]

6. ③

지문에서 옥단춘이랑 이혈룡을 죽이려는 공간이 대동강인데 이게 재생의 공간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대동강에서 죽었던 인물이 정말 부활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모를까 주어진 지문에서는 '재생'이라고 볼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① 암행어사 출두요! 시전하고 중략 이후에 김진희 떡락합니다. 대동강 물에 빠뜨릴려고 한 것에 더해 심지어 이혈룡이 살려줄려고 했는데 벼락 맞고 죽죠.

② 네 죽기 전에 북소리 울리고 옥단춘의 감정이 격해집니다.

④ 허용 가능하죠? 김진희가 친구 배신하고 죽이려 듭니다. 이게 지금 김진희의 잘못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목숨은 살려주려는 주인공의 의도를 넘어 '천벌의 벼락'을 맞고 골로 갑니다

⑤ 그렇죠. 빈털터리로 김진희 찾아갔다가 옛 정 무시하고 죽이려 들던 상황에서 암행어사로 돌아와서 김진희를 참교육하는 것이니까요. 명예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7. ①

<보기>부터 봅시다.

납산에 불이 나서 꽃이 탑니다.

- 불은 꽃을 태우니까 문제상황이겠군요.

그런데 그 불은 끝 물이라도 있지만 이 몸(아마 화자겠죠?)에는 연기 없는 불이 나서 끝 물도 없다고 합니다.

- 1연에서 제시된 문제 상황보다 화자는 더 문제입니다. 꽃을 태우는 불은 끝 물이 있는데 '이 몸'은 연기 없는 불이 나서 끝 물 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쉽네요.

선지 볼게요. 납산에 불이난 것은 문제 상황입니다. 옥단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겠네요.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② 네. 꽃을 태우는 불은 꽃의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옥단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옥단춘 본인의 문제 상황이겠죠. 그럼 꽃은 문제 상황을 직면한 대상이니 옥단춘의 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③ 이것 또한 허용 가능하겠습니다. 연기 없는 불이 나서 끝 물이 없는 내 상황을 끝 물이 있는 저 상황과 대비하여 급박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④ [A]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살려달라는 옥단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심정 또한 문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⑤ 이건 뭐.. 좌절감 당연히 허용 가능하죠? <보기>의 구절이나 옥단춘의 상황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8. ②

[B]에서 드러난 옥단춘의 태도는 희생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 낭군은 살려달래요. 내가 죽을테니 이혈룡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대신 죽겠다는 거죠.

① 모험은 좀... 아니죠?

③ 갑자기 왜 늙음이 나오니까. 노화는 예바죠.

④ 으음.. 이 선지를 고른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서 자신을 이겼다고 억지로 허용하더라도 나 죽는 '대신' 이혈룡을 살려달라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⑤ 뭘 미워하나요..? 죽이려는 사람들..? 그렇다고 [B]에 그런 미움이 드러나진 않죠?

9. ②

사자성어 생략

어휘가 좀 과하긴 한데 그래도 뜻풀이 정도는 한 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